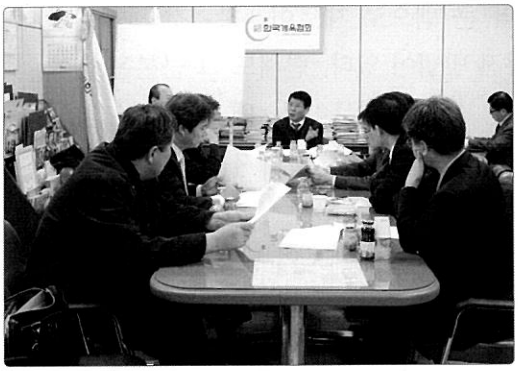
2013년도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KBS '추적60분' 축산물 항생제 잔류 보도관련 대책 논의



본회는 지난 1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병아리 생산잠재력 및 육계 사육마리수의 증가로 닭고기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KBS 2TV '추적60분'에서 방영 예정인 축산물 항생제 검출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본회 정병학 회장을 비롯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임원 및 실무자들은 지난 1월 21일 해당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재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바로 잡고, 설명절(2월 10일) 전 방송을 한다면 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방송을 취소하거나 설 이후로 방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정병학 회장,정부조직 개편 후속 조치 규탄

농축산식품 안전 · 위생 업무 이관 철회 요구

본회 정병학 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장들은 지난 1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농축산식품 안전 · 위생 업무 이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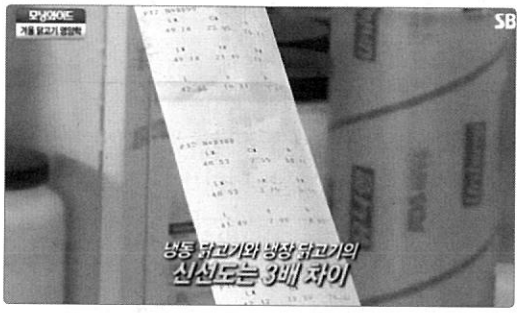
농민단체장들은 "이번 인수위 결정은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21세기를 이끄는 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기존 방침을 포기한 것"이라며 "농업과 식품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식품정책은 실적 올리기 위주의 무차별적 규제와 단속 일색으로 치우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농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과 연계해야 단순 먹거리 생산 역할 수행을 넘어 미래까지 성장할 수 있다"며 "우리 농업이 과거 답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식품산업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반드시 농장에서부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농업과 식품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 관련 모든 업무를 농식품부 중심으로 일원화 할 것을 일제히 역설했다.

본회, 공중파 방송 통해 닭고기 우수성 홍보

국내산, 수입산 닭고기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알려



본회는 겨울철 건강에 좋은 닭고기의 효능을 알리고, 수입산보다 뛰어난 국내산 닭고기의 품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송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토)에는 SBS의 대표적인 웰빙 먹거리 소개 프로그램인 '잘먹고 잘사는법'을 통해 겨울철에 보양식으로 즐길 수 있는 닭 칼국수를 소개하고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의 장점을 알렸다.

방송을 통해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는 "닭고기는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쉽게 소화가 잘되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섭취하기에 좋으며, 서양에서도 감기에 걸리면 닭고기 스프를 먹을 만큼 겨울철 면역력 향상에도 좋은 식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22일(화)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태백산행을 마치고 원기보충을 위해 즐겨 먹는 닭고기 요리 맛집과 냉동유통방식의 수입산과 비교했을 때 냉장유통으로 신선하고 품질이 뛰어난 국내산 닭고기를 고를 수 있는 법을 소개했다.

본회 정병학 회장은 "소비자들이 즐겨보는 다양한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 건강에 좋은 국내산 닭고기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계속되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계육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3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 논의

본회는 지난 1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편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편집위원들은 오는 2월에는 축산계열화사업법과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는 만큼 농가와 업체 등 계육관련 종사자들에게 본 제도에 대해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특집으로 정해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